



어두웠던 시대를 평정하고 살기 좋은 나라, 대하국을 세우셨던 시조, 명옥진 황제- 우리가 그 정신과 얼을 이어받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중심이 됩시다!



명 태 식 명씨대종회 회장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 특히 목숨을 걸고 온 몸을 다 바쳐 일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각오와 다짐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조, 명옥진 황제께서는 원나라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중국의 중원을 말로 달리며 백성들을 못살게 했던 세력들을 물리침으로써, 혼란하고 어두웠던 시대를 평정하고 마침내 살기 좋은 나라, 대하국을 세우셨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를 뛰어다니시던 그분께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닥쳐 왔을까요.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백성을 못살게 하던 적들을 모두 격퇴시키셨습니다. 목숨을 건 단단한 각오로 몸을 바쳐 싸웠기에 얻을 수 있었던 승리였습니다.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남다르게 단단한 다짐과 높은 뜻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분께서 오른 황제의 자리는 오직 백성사랑의 일념을 지니고 싸웠던 이에게 주어질 당연한 보상이며 귀결입니다. 그렇게도 높고 훌륭한 뜻을 용감하고 당당하게 펼치셨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필귀정, 일은 반드시 바르게 결정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뿌린 만큼, 힘쓴 만큼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훌륭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피를 나누어준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자랑스러워 가슴이 뻥

니다. 눈물이 핑 돌만큼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이 격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이 바로 나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뿌리입니다.

나의 뿌리, 우리의 뿌리가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하늘만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그 고마움을 헤아려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올바른 일에 온 몸을 다 바쳐 열심히 살아갔으면 합니다. 작은 마음으로 작은 일에 매달리지 말고 큰 마음으로 큰 일에 매달려 열심히 일해 나갑시다.

하늘은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노력하며 사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나를 열심히 움직여 살아야 하겠습니다.

노력에 대한 좋은 결과, 그 엄청난 성공경험을 우리의 시조로부터 배울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고마움이고 생생한 가르침인지 가슴이 벅칩니다.

우리 각자의 속에는 이와 같이 무엇을 하더라도 남다르게 단단한 긍지와 뿌듯함이 있습니다. 황제의 후예라는 피가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해낼 수 있다는 우리만의 특별한 자신감, 우리만의 프리미엄과 위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 틈틈이 우리 혈육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분을 함께 기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하나로 뭉칩시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나누어 가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기리고 빛나게 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피를 나누어 가진 나 아닌 다른 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자신만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했던 분이 우리 시조이셨습니다.

함께 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황제의 후예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위대한 황제의 정신과 얼을 이어받은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종친과 종친가족 그리고 주위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뿌리공원 '명씨상징조형물' 명위진 명예회장 1억원 출연으로 건립하다!



우리 명씨대중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대전 뿌리공원(효문화관리원) 내에 명씨 상징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그 시기를 2017년 12월말까지로 하는 상징조형물 건립에 관한 공문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대중회는 임원회의를 열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명태식 대중회장장과 명광주 부회장이 맡아 추진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2017년 5월 정기총회에서 종친들에게 알린 후, 건립 소요 비용 1억원 모금운동을 전 종친들을 대상으로 전개해서 그 기금으로 명씨상징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이었다.

종친들의 힘과 뜻을 모아 명씨상징조형물 건립했다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대중회 발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씨상징조형물 건립은 곧바로 가장 중요한 대중회 역점사업으로 부상했다.

모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대중회 임원이 분담하고, 그래도 부족한 비용은 고문, 명예회장들께도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중회에서는 5월 정기총회에서 상징조형물 건립기금 모금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지방종친회별로 종친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명씨상징조형물 건립 필요성은 처음, 몇몇 고문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기금출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실제 건립추진단계에 이르러 건립기금 모금방침이 정해지자 당시의 논의는 원론적 수준의 필요성 논의에 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10월 시제를 기점으로 종친들을 대상으로 모금된 기금이 기대이하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건립준비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다.

당시 모금된 것만으로는 건립이 불가능하고, 추가모금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마감 기한인 12월까지로는 도저히 건립할 수가 없었다.

추진위원회와 대중회가 연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 거실왕설래를 거듭했다.

이후 명위진 명예회장이 기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문단 긴급회의를 막후 소집, 본인이 건립기금 전액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전격 통보함에 따라 일시에 기금확보문제가 해결되었고, 명씨상징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명태식 건립추진위원장은 사의를 표했고, 뒤를 이어 명동성 부회장이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절대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는 경험이 많은 상징조형물 전문업체에게 작업일체를 의뢰하여 명씨상징조형물 안을 뿌리공원 측에 우선 제출하고 심사를 마친 후, 터파기 등 기초작업을 12월 말까지 착수하는 절충안을 제시, 자연스럽게 작업이 용이한 3월초까지로 건립공사 마감기한을 순연할 수 있었다.

이후 우리 추진위원회는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표현요소가 지나치게 중국적이라는 문제로 심사결과가 조건부 통과로 결정됨으로써, 또 한 차례 뿌리공원을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수정보완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수정보완 대책마련에 부심해야 했다.

이후 우리는 통과통보를 받고, 뿌리공원측과 명씨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한 협의를 최종 조율하는 등 산고 끝에 건립을 할 수 있었다.

명씨상징조형물은 건립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랑스런 우리 명씨의 뿌리와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될 것이다.

〈명씨상징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



2018년 5월 5일, 뿌리공원에
건립한 명씨상징조형물 정면의 용
부조는 시조 황제의릉인 중국 중경 예릉
에서 출토된 시조황제 곤룡포에 새겨진 다섯
발가락 용 문양을 고 부조형태로 도드라지게 표현한
정밀 조각작품이다. 다섯 발가락을 가진 용은 황제를 상징한다.

2018년 시조 명옥진 황제 예릉 추모방문기-

아! 화려했던 大夏여, 홀륭했던 大夏황제여! 미래의 우리를 위해 오늘의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지키자! 하나로 뭉쳐서 그 시대를 재건하자!



명영식 대중회 산악회장



2018년 올해는 시조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652년이 되는 해이다. 시조께서는 1329년 9월 9일 중국 호북성 수주시 수현 매구리에서 탄생하셨고, 1366년 2월 6일(음력) 세상을 떠나셨다.

우리 명씨종친 일행은 3월 21일, 시조 명옥진 황제께 제652주기 시제를 올리기 위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41명으로 이루어진 추모방문단을 구성하여 중국 중경의 예릉 방문 길에 올랐다.

추모방문단은 신청과정에서는 51명이었으나, 이후 이러저런 사정이 있는 종친들 10명이 빠짐으로써, 추모방문단은 최종 41명으로 꾸러져 3월 21일부터 5박 6일간의 일정을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우리 추모방문단은 3월 22일 오전 10시, 예릉에서 시조황제에 대한 시제를 모셨고, 그 이후에는 명승고적을 관광하는 재미있는 추모방문 전체 일정을 마치고 3월 26일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나는 수원지방종친회 총무와 명대산악회 회장을 맡아오면서 종친회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대중회 상임이사라는 영광스런 대중회 임원으로 2013년 7월 1일 대중회조직에 들어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번이 네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추모방문은 사무총장의 부탁으로 중국현지에서 준비해야하는 제물을 빼고 한국에서 준비할 것들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는 나의 집사람과 함께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해였다.

우리 추모방문단은 일정상 하루 한번 밖에 운항하지 않는 비행기시간을 맞추기 위해 3월 21일 아침 6시에 인천공항에 집합해야 했다.

지방 종친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른 시각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지 않다. 웬만한 지방에 사는 종친들은 새벽 3시경 출발해야 하고, 창원이나 부산에서 사는 종친들은 전날 밤 심야버스를 타고 올라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기에 열정 없이는 동참이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41명이라는 수의 종친들이 추모방문단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자랑스런 일이다. 그만큼 우리 명씨종친들이 숭조사상이 깊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경 도착 후 첫 오찬장은 “권근초도”라는 예술관이었는데 점심식사도 좋았지만 호수를 낀 풍광이 대 장관을 연출하는 곳이어서 식사가 더욱 맛있었고 중국술을 곁들임으로써 그 품미 또한 최고였다.

오후에 돌아본 옛 중경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자기구 고진거리리는 우리의 남대문시장을 방불케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중국전통 상점가였다. 평일임에도 장사진을 이루었던 그곳 풍물거리리는 휴일에는 사람들이 붐벼서 통행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첫날 저녁에는 예릉을 관리하는 중국 강북구 공무원과 중화명씨종친회를 초청했으나 전인대회 후유증으로 공무원 비상근무상태라 나오지 못해 중경의 중화명씨 종친들과 만찬시간을 가졌다.

만찬은 명강 종친회장 겸 중화명씨역사연구회 회장, 明文春 교사, 귀양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주류회사를 경영하는 명소정 사장, 종친회 재무인 明東發 교사, 부동산업을 하는 明銳 등 5명이 우리 추모방문단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중화명씨측과 해마다 교환 초청형식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올해에는 우리가 먼저 초청하는 것으로 하고 화기에애한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 추모방문단 중 9명의 제례관이 중심된 선발대가 먼저 예릉에 가서 시제 준비를 하기로 하고, 이른 시간에 호텔을 나서서 예릉으로 향했다.

예릉을 향하는 중경 시내 전체가 높은 빌딩이 빼곡했다. 예릉 주변도 마찬가지로 빌딩숲을 이루고 있어서 예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발전한 모습이었다. 중국의 도시 발전 속도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릉의 시제는 명순식 사무총장의 집전으로 올려졌다. 초헌관은 총랑공 명태식 대중회 회장, 아헌관은 자헌공 명판식 창원지방종친회 회장, 종헌관은 시랑공 명창근 상임이사, 축관에는 명노형 재경서천 종친회 회장, 집사는 명제만, 명효남, 명남식, 명수철 이사가 맡았고 나는 매년 해오던 집사역할을 다른 종친들에게 넘기고 제례진행과정과 종친들의 제례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

이번 시제에는 중국 명씨종친들이 함께 제례를 올릴 것을 요청하여 그들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제단 옆으로 올리고 우리 한국명씨 종친들의 뒤에서 제례를 올리기로 하고 함께 시제를 올렸다.

그러나 감씨에 대해서는 설만 분분할 뿐 아직까지 어떠한 정확한 검증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화명씨들조차 그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고, 입장이 정



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화명씨 종친회 측에서 감씨들은 시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을 전했다.

시제를 올리고 난 후, 오후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귀주성 귀양으로 이동하였는데 철도승차 과정과 절차가 마치 비행기를 탑승하는 공항처럼 엄격했으며, 중경 서역과 귀양동역은 규모가 매우 컸고 웅장했다.

3일째인 오전에는 안순시 은목거리 폭포와 천성동굴을 관광했으나 우기가 아니라서 제대로 된 멋진 풍광의 폭포를 볼 수 없었다. 오후에는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3대 폭포인 높이 74미터 넓이 61미터규모의 웅장한 황과수폭포를 구경했는데 만년설과 연결된 폭포라서 우기가 아니었음에도 수량이 대단해서 빼어난 장관을 연출했다.

4일째는 홍의시에 있는 만개의 봉우리가 모여 숲을 이고 있는 만봉림을 카트를 타고 돌아보았는데 추모방문단 일행 모두가 사진촬영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경치가 황홀했다.

5일째는 홍의시 마령하 대협곡을 찾았는데 2천여 년 전 생겨난 카르스트 지형으로 깊이가 무려 300미터에 길이가 90킬로미터 규모로 보는 이를 압도했다.

고속철을 타고 다시 중경으로 향하기 전, 우리 추모방문단 일행은 명나라 주원장이 중국을 통일한 후 변방수비 군인들과 그 가솔들이 거주하도록 만들었다는 천룡툰보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주원장의 명나라를 상징하는 명자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시조 황제가 세웠던 대하국을 이어 나라를 세운 주원장 나라를 상징하는 명자가 휘날린다.

저 명자가 우리 대하국 명옥진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원장은 왜 명을 썼을까? 오만가지 생각이 교차하지만, 아쉬움뿐이다.

힘을 갖지 못하면 무너진다. 우리 명씨 혈족도 뭉치지 못하고 흩어지면, 힘을 가진 다른 이들에 묻혀 존재감이 사라지고, 마침내 소멸된다.

우리 시조의 화려했던 대하국이 역사 속에 더욱 더 오래오래 이어져 내려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백성을 아우르며,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백성을 위한 태평성대의 화려한 대 중국의 새로운 역사를 역사가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추스릴 수 없을 정도의 아쉬움과 회한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간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한다. 미래의 우리를 위해 오늘의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지

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뭉쳐서 우리만의 힘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아! 화려했던 대하여, 홀로했던 대하황제여!

우리가 뭉쳐 다시 그 시대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 날인 3월 26일, 우리 추모방문단 일행이 중경 첫 관광지로 찾은 곳은 중경인민대례당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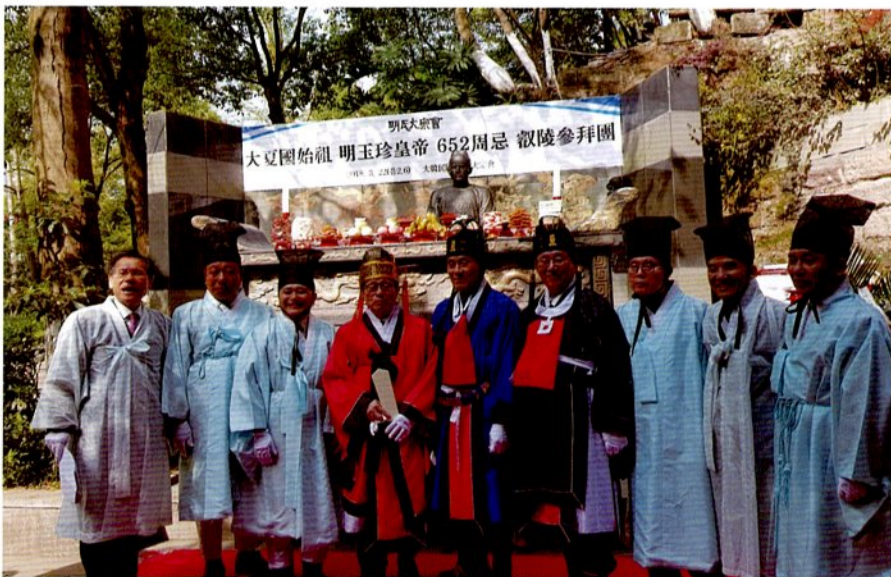
우리는 그곳에서 한국 명씨대종회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자 중국의 국정원적인 국가보위부 직원이 나와 우리 일행의 사진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드 후유증으로 인한 대한민국이란 이름에 대한 거부반응이었다. 대국답지 않은 모습으로 느껴져서 씁쓸함을 느껴야 했다.

그 순간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대하국 황제의 후예라고 설명했어야 했을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세계를 무대로 살아가는 명씨들이라고 당당하게 설명해보고 싶다.

우리 일행은 오후 3시경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 6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5박 6일 동안 예뻐추모방문 일정을 함께 하며 정들었던 종친들과 아쉬운 작별을 함으로써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내년에는 호북성 수주시에 있는 시조황제의 탄생지기념관과 양신에 새로 지은 아주 큰 규모의 중화명씨사당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행선지를 포함한 일정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추모방문일정을 뒤돌아보았다.



2018년 명씨대중회, 신년하례회 개최

명씨들이여!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자!



명순식 명씨대중회 사무총장

지난 1월 19일(금) 오후 5시, 서울 중구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된 대중회 신년하례회에는 60여명의 종친이 참석해서 모처럼 성황을 이루었다.

지난해까지는 참석자 수가 적어 분위기가 썰렁하고 아쉬움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명씨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했다. 원로들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젊은이들이 많아서인지 하례회 식당 분위기가 아주 활달했다. 종친들 모두가 활기차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좋아했다.

이제 우리 신년하례회나 종친회가 과거의 묵직한 모습으로부터 활력이 넘치는 젊은 모습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괜히 마음이 들떴다.

나는 종친들에게 설 새 없이 전화를 걸어 종친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것이 통해서 일까, 정말 눈에 띄게 젊은이들이 많았다. 보람의 시간이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 종친회가 못할 일이 없을 듯했다.

이제까지 우리는 종친회를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어르신들의 자리는 어르신들의 자리대로 놓아두고, 젊은이들의 자리를 더 넓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며 종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멋진 종친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힘써야 하겠다. 그렇게 해야 만이 젊은이들 틈에서 나 스스로도 젊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신이난다. 종친회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활력이 넘치는 오늘이 좋다.

나는 그래서 사회자로서 목청을 다듬어 깔끔한 목소리로 신년하례회가 열리게 됨을 알렸다. 신년하례회는 그런 새로운 희망을 보며 그렇게 멋지게 시작했다. 국민의례를 씩씩하게 했고, 참석자 전원을 한 분 한 분 소개했다. 저 멀리 지방에서 달려온 종친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자리, 종친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반갑고 우호적으로 이름을 불러주겠는가? 나는 참석자들의 직함과 이름을 목청을 높여 크게 불렀다. 박수가 신나게 터져 나오도록 내가 먼저 크게 박수를 쳤다. 바로 이거였다!

명태식 대중회장은 신년사를 약간은 가리앉은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좌중의 시선이 모아지는 것을 느꼈는지 말에 점점 힘이 들어갔고, 끝 무렵에는 확신을 가진 박력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이래서 젊은 종친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출발부터 분위기가 참 좋았다.

대중회장 신년사에 이어 대중회 사무총장인 나는 더 또랑또랑한 톤으로 참석자들에게 지난 한 해의 대중회 주요업무와 앞으로 새해에 있을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특히 3월에 있을 중경 예릉시제 참여를 겸한 관광일정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새로

운 관광지를 관광일정에 넣었음을 강조했고, 참여가 필요함을 힘주어 설명했다. 지방단위, 가족단위, 동네단위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즐겁고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

인원이 적은 여행은 움직이는 데에는 수월하겠지만, 재미는 그만큼 덜한 것이 사실이다. 시끌벅적한 종친가족 여행이 얼마나 멋진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는지를 나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여행하는 순간은 힘이 들지만,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 모두가 특별한 즐거움인 것을...

얼굴을 붉힐 일이 없는 것이 종친가족들이 함께하는 여행 아니겠는가? 나는 정말 조용한 여행보다는 북적북적한 여행을 좋아한다.

때로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종친도 있고, 때로는 일행을 이탈하는 종친도 있고...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한 할아버지의 후손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나와 같지 않은 생각을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움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친관계가 아닐까 싶다.

조금 언성이 높아지면 어떻고, 다소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우리의 허물이고, 내가 갖지 않은 내 모습인 것을... 그래서 종친이고, 모두가 좋다.

그런 사소한 불편함과 어려움은 어떠한 여행에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있는 여행이 오히려 더 즐겁다. 추억의 이야기꺼리로 남겨지기 때문이다.

지난 해 예릉시제는 참여 종친이 겨우 18명이었다고 한다. 너무 저조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신나게 예릉시제와 관광일정을 소개했다. 반응이 좋은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예릉 추모방문 행사가 없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많은 종친들의 참석을 호소할 수 있었다.

이어서 대하장학회 명광주 사무총장은 대하장학재단의 사업을 요약해서 보고한 후, 곧바로 이어서 "대중회와 지방종친회, 그 관계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선조들은 중앙 종친회와 지방종친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으며, 각 종친회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를 실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해 나갔다.

종친회의 위계, 중앙종친회의 엄격한 권한과 역할, 지방종친회의 활동과 책임, 종사를 맡은 이의 책임과 사명, 그리고 소명의식 등을 실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고, 이상적인 종친회 운영을 다시 생각하게 했던 유익하고 훌륭한 강의였다. 참석자들은 명광주 사무총장이 각 종친이 숙명적으로 부여받은 명씨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소명감을 갖고 착실하게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치자 한 동안 큰 박수를 보냈다.

명광주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명씨대중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오래도록 후원을 해 오신 명위진 명예회장의 빛나는 업적과 관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며, 그 훌륭한 뜻을 기리기 위한 종친 모두의 감사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위한 작은 성의 표시로 명동성 부회장은 4천만 원을 들여 명위진 명예회장의 흉상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이미 작업에 착수하여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명광주 사무총장 자신 역시 같은 돈을 들여 명위진 명예회장의 회고록(자서전)을 발간해드리기로 하고 작업이 완성직전이라고 보고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두 사람 모두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명동성 부회장은 평소 명위진 명예회장의 대중회 발전을 위한 생각과 실천은 감히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무한한 감사와 고마움을 갖고 있었기에 명광주 사무총장의 자서전 발간과 함께 흉상을 세워, 명위진 명예회장을 위한 대대적인 자서전 발간식과 흉상제막식을 가질 예정이었다고 밝혀서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받았다.

행사를 마친 신년하례회 참석 종친들은 맛있는 호텔뷔페식으로 식사를 함께 했다. 명을식 대중회 고문이자 제례위원장은 건배사를 통해 젊은 종친들의 참여 열기에 감동을 받았다면서 원로들이 만들어놓은 종친회를 젊은 종친들이 계승하여 더욱 활성화시켜줄 것을 부탁했다.

10여개의 대형 원탁에 둘러앉은 종친들은 식사를 하며 술을 서로 권하기도 하면서 큰 웃음소리를 섞어가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즐겁게 오랫동안 나누었다.



행사를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에게는 명태식 대종회장이 기념타올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고, 보령종친회(회장: 명차량)는 김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는 흐뭇하고 넉넉한 모습이 이어졌다.
이날의 신년하례회 비용 일체는 명태식 대종회장이 부담하였다. 우리는 신년을 그렇게 멋지게 기분 좋게 출발했다.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2018 설복지금 전달

재단법인 대하장학회(이사장 명위진)는 장학재단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총 15명에게 각 500,000원씩 총 7,500,000원의 설복지금을 전달했다.

복지금은 매년 2차례 설과 추석이전에 신청을 받아 설과 추석 직전에 지급하는데, 복지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장학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복지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재하장학회는 지난 2017년 추석 복지금으로 총 17명에게 각 500,000원씩 총 8,500,000원을 전달했다. 이번 추석 복지금 신청은 다음포털 대하장학회 카페에 공지된다.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2018전기 대하장학생 선발발표

재단법인 대하장학회(이사장 명위진)가 2018년 전기 대하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생으로 선정된 20명의 장학생 명단을 다음포털 대하장학회 카페에 발표했다. 대하장학회는 매년 2차례로 나누어 1학과 2학과 초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수여한다. 지난 2017년 후기에는 16명의 장학생을 선발, 1인당 3,000,000원씩 총 48,000,000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대하장학회의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생활비로 지급하는 장학금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생활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생이 받은 다른 장학금과 무관하게 3,000,000원을 수여한다.

이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5월 5일, 대전 효문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장학증서 수여식 후, 뿌리공원에서 열리는 명씨상징조형물 건립기념식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장학생들은 연도별 장학생 동기회에 참여, 회장, 부회장을 뽑아 장학생 동기회를 운영하며, 장학재단의 별도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해오고 있다.

2018후기 대하장학생은 오는 8월말 다음포털 대하장학회 카페를 통해 공지하고 9월 중순 신청서를 접수, 9월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하장학회 사무국>



• 사진은 2017년 후기 장학증서 수여식임.

2017년 명씨대종회 파주 경모사 추향대제-

"맑은 술과 음식을 정성껏 차려 삼가 바치오니
 흠향하시옵고,
 자자손손 모두 건강하고 귀하게 영달하며 번창하고,
 종친 모두가 화목할 수 있도록 살피 주시옵소서..."



명영철 명씨대종회 감사

2017년 10월 21일(토)은 대하국 태조 흠문소무황제 명옥진 시조 황제님과 개회 황제 명승 2세조님, 그리고 자헌공 명의, 총랑공 명현, 부사공 명준, 시랑공 명신 등 시조부터 3세조까지의 할아버지 할머니 열두 분에 대한 시제를 올리는 날이었다.

원래 우리 명씨대종회의 시제날은 매년 10월 3일이었으나 추석연휴와 겹친 관계로 시제날짜를 10월 21일로 늦춰서 잡았다.

대종회 파주시제는 우리 명씨의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로서 매년 전국에서 300여명의 종친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참여해왔으나, 추석을 전후하여 추수를 해야 하는 농번기인 관계로 지방종친회원들의 참여가 줄어 시제참석인원이 200여명을 넘어서는 정도로 줄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매년 5월 5일의 정기총회 때보다 시제일에 종친들의 참여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쉬움이 컸다.

시조할아버지에 대한 제사를 올리는 이가 누구이어야 할까? 나와 내가 없이 후손 모두가 시제 참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다.

가까운 가족을 우선 챙기는 것이 우선인 세상이니 나쁘다고 탓할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매년 이렇게 시제를 준비하고 제례를 올리는 이들이 특별히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 종친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는 것이 슬프고 안타깝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혼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시조를 비롯한 선조들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는 것 아닌가? 왜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인지 속상하다.

시조할아버지의 후손이 2만 8천명인데, 겨우 300여명만이 대종회와 이러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종친회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후손들도 때때로 자신의 조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오늘의 내가 있는가를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러면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감사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지는 않는 것일까?

그것도 우리의 시조할아버지는 정말 남다른 분 아니신가? 황제님! 일국의 왕보다도 더한 황제가 우리의 시조이시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아우성일 때 그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서서 백성을 못살게 구는 무리들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평정하셨던 분 아닌가? 자신보다는 백성을 생각하고 살피는 대단한 분 아니셨던가? 그분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우리 후손들인데, 왜 오늘에 와서는 자신을 위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인가?

백성을 섬기려하셨던 시조할아버지의 그 훌륭한 정신과 얼이 우리들 속에서 천 년만년 살아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분의 피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속하기 까지도 하다. 황제의 후손이라고 말하며 살아가지만, 그분을 기리는 일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제발 우리 후손들 모두가 정말 피치 못할 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면 한 해에 한 두 번은 함께 자리를 해서 그분을 생각하며 고마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것이 후손으로서 얼마나 보람되고 도리를 다하는 일이며, 또한 뿌듯한 긍지와 친족 간의 정을 뛰어 넘는 친밀감을 갖게 할 진정 가치롭고 멋진 일임을 왜 모를까?

혈족과의 만남은 남과의 만남이 아니지 않은가? 후손 서로가 잘 되도록 격려하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자매의 도리이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혈족이 더 번성하고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멋질 수 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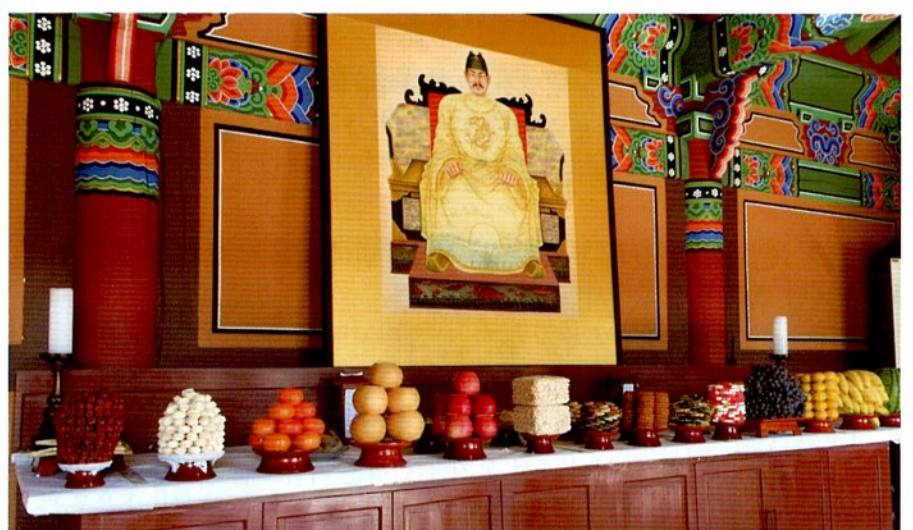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보다도 적응력과 경쟁력을 가진 것만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고, 진화해 나가는 것인데...

가슴이 아프다.

몇 사람만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같은 피를 나눈 이들이 모두 나서서 우리를 있게 한 분들을 기리고, 나의 형제자매인 혈족들의 좋은 일을 함께 즐겨워하고 슬픈 일은 나누어 짊어질 일 아닌가?

이제 우리 종친회도 그동안 종친회를 위해 일해오신 분들이 모두 연로하셔서 점점 더 참석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젊은 종친들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 하든 우리 명씨들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한다.

불현듯 젊은 종친들이 나서지 않으면 종친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며 잠시 얼굴과 머리가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때, 사당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확성기를 통해서 곧 시제가 시작된다는 사회자의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나도 안내방송이 들려오는 곳으로 향했다. 제례를 올리는 사당 안 마당이다.

우리 시제는 웬지 모르게 좋다. 사당은 웬지 모르게 정이 간다.
제례를 위해 마당에 도열한 종친들이 정겹고, 푸근하다.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모두가 비슷비슷한 얼굴들이어서 영락없이 같은 핏줄임을 직감하게 된다. 참 이상도 하지...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인지... 싫어할 수 있는 얼굴이 하나도 없다. 내 형제요 아저씨요 할아버지다.

사당 안쪽 정 중앙에는 제단 위쪽으로 오직 백성을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아름답고 훌륭한 뜻을 가슴에 품으셨던 당당한 모습의 시조황제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다. 다시 하나 더 마음속으로 감사인사를 드렸다.
"제 아이들이 모두 커서 마침내 새 봄에는 작은 딸 아이까지 짝을 맞춰 살게 됩니다... 모두가 시조 어르신 때문입니다"
나는 늘 우리 집의 크고 작은 일을 시조께 보고 드린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진다. 잘 풀린다.
사당에만 오면 친근하고 푸근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도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지가 벌써 오래다. 시조를 믿고 따르고, 그 똑같이 생긴 얼굴을 가진 후손들과 이야기 하면서 재미있게 살아갈 생각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 생각 또한 오래 전에 마음먹은 것이다.

시제는 명광주 부회장이 진행을 맡았다. 종친들은 진행자의 구령에 따라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 차례 앉은 자리에서 절을 올렸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들은 사당 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종친들은 사당 마당에 깔아 놓은 자리에 앉은 채로 허리를 굽혀 절했다.
맨 처음에는 시조황제와 황후 팽씨 할머니, 그리고 2세조 승황제 내외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조 네 분의 내외 위패를 모시고 절을 했다.
종교문제로 절을 올리지 않는 종친들은 앉은 채로 시제를 참관했다. 마음으로 자리를 같이 하는 모습도 나쁘지도 낯설지도 않고 보기 좋았다. 이것도 벌써 수년 전부터 해오던 터라 우리 명씨대중회 시제야 말로 시대에 부합하는 아주 자유로운 모범시제를 올리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시제는 절을 올리고 싶은 일반 종친들이 마지막으로 모두 모여서 함께 절을 올린 후, 명태식 대종회장이 감사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모두 끝이 났고, 종친들은 제를 올린 술잔으로 음복을 하고 밤과 산적을 한 입씩 입에 넣고 오찬장인 대하파안기념관 행사장으로 옮겼다.

맛있는 식사가 마련되어 있는 대하파안기념관 오찬장에는 시조황제의 영정으로 장식된 대형 추향대제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시제분위기를 한껏 격조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이번 메뉴도 세상 어디에서도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아주 맛있는 일명 황제탕이다. 명화진 셰프가 며칠간 밤을 지새면서 준비했다. 보는 것만으로도 침이 넘어갈 만큼 국물이 진하고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아주 맛있어 보인다.
많은 종친들은 이 황제탕 맛의 중독성을 경험한 탓인지 이것을 먹는 것이 행사참여의 또 다른 진미라고 말한다. 정말 맛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지방종친들에게는 더더욱 맛이 있을 듯하다. 종친들 사이에 섞여 앉아서 나도 황제탕 두 그릇을 들이켰다. 이 맛을 어디서 보라!
명화진 셰프님, 너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 진국 황제탕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지는 것이 중독이죠?
테이블 위에는 수원에서 명가네순대(대표 명성순)가 보내온 막걸리와 소주가 올려져 있어서 황제탕의 수육과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종친들은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곁들였고, 종친들은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은 채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중앙종친회 행사에 참여자가 가장 많은 곳은 청양지방종친회(회장 명노우)이다. 청양은 명씨 집성촌 마을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서 원래부터도 명씨의 중요 본산이고, 청년종친회(회장 명광민)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기 때문이다. 청양은 늘 버스를 대절해서 종친회 행사에 참석할 만큼 가장 많은 종친들이 종친회에 참여해오고 있다. 모범적인 종친회 활동과 참여가 고맙고 기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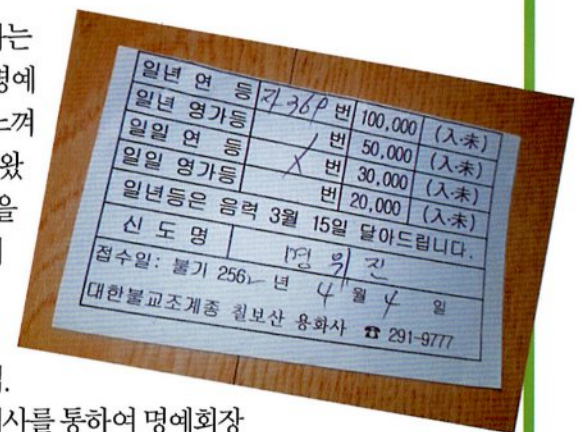
창원, 부산, 여수, 고흥 등 천리길이 넘는 지방에서도 승합차를 타고 시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핏줄이 과연 무엇이고, 종친회가 과연 얼마나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곳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천리 길을 마다 않고 올라와 시조께 제사를 올리는 이들에게 지순대대로 만사가 형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시조를 위하는 그런 가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내년에는 전국 각지의 많은 종친들이 함께 모여서 시조황제 시제를 같이 모셨으면 한다.

종친 미담 & 칭찬 ①

명위진 명예회장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절에 연등을 달아 만수무강을 빌고 있는 수원 명가순대 명성순 종친을 칭찬합니다

수원에서 '명가순대'를 경영하는 명성순 사장은 평소 명위진 명예회장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느껴 왔다고 주위사람들에게 말해왔었는데,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며 명위진 명예회장 내외분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자신이 다니는 절에 1년 연등을 달았다는 흐뭇한 소식.

명성순 사장은 명영식 상임이사를 통하여 명예회장 내외분의 생년월일을 알아냈고, 곧바로 자신이 다니는 절인 칠보산 용화사에 연등을 달았다고 한다.
명성순 사장은 몇 년 전부터 대종회 행사에 막걸리와 소주를 협찬해왔던 종친 여걸로 소문이 나있으며, 현재 수원에서 성업 중이다.



• 우리 명씨대중보는 종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서 종친들에게 소개하고, 칭찬해나갈 예정이다. 칭찬하고 싶은 종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어 제보하면 된다.

지방시제 순방가-

신이시여!

한 자리에 둘러앉아 조상을 우러르며 살아가는
어질고 마음씨 착한 이들에게
만복을 내려주소서!

명지성 명씨대중회 상임이사

우리 명씨대중회 임원과 고문들은 매년 전국 7개 지역의 지방중친회 시제를 함께 지냄으로써 중앙중친회와 지방중친회 간 우애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중앙중친회 임원과 고문들 약 80여명이 전국에 있는 지방중친회 시제에 참여했다.

지방중친회 측의 환대 자체가 잊지 못할 만큼 인상적이어서 매년 지방중친회 시제에 참여하는 중친들의 마음이 흐뭇해진다.

그러나 총랑공 집성촌인 태안과 자현공 집성촌인 창원은 시제 일자가 중복되어 불가피하게 중앙중친회 임원과 고문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참여하고 있다. 각 지방중친회의 시제일은 예전부터 오랜 동안 지켜온 날짜이기에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지방중친회 측의 뜻이므로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서 중앙중친회 임원과 고문들이 전년에 가지 않은 곳을 가는 식으로 번갈아 참여하고 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태안의 경우에는 중친들이 200여명이 넘지만 사당이 없다는 것이다. 8세손이신 구수 할아버지만을 야산에 있는 산소에서 시제를 모셔오고 있다. 사당에서 모시는 시제에 익숙해서인지 다소 낯설기도 하지만, 바로 가까이 선조를 모시고 올리는 시제여서인지 더 경건한 느낌을 갖게 된다.

창원은 그야말로 천리길이라서 이동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나이가 많으신 원로 중친들은 건강상 참석이 어려워 올해는 6명만이 창원 시제에 참여했지만, 크게 환대를 해주기에 거리가 멀어도 가지 않을 수 없다. 찾아가면 반겨주는 따뜻한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핏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창원지방중친회는 그 어느 지방중친회보다도 재정상태가 넉넉해서 올해에는 새로운 곳에 사당을 멋지게 새로 세운다고 하니 큰 기대를 갖게 된다. 현재의 사당이 있는 곳이 재개발되기 때문이다.

청양은 대표적 명씨집성촌으로 중친들의 수로 보나 역할로 보나 세력이 대단히 크고 또한 열성적이다. 명위진 명예회장, 명광길 명예회장, 명을식 고문, 명석호 고문 등의 고향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어느 지방중친회가 있는 지역보다도 행사가 풍족하다. 제례복을 제대로 갖추 입고 제례를 올리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제례절차도 잘 갖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마치 대중회시제를 옮겨 놓은 듯했다.

시랑공 집성촌인 고흥 덕흥리 지방시제는 젓상 차림이 풍족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색다른 것은 그곳 할머니들이 나서서 제례 준비를 하는 것인데, 다른 지방중친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중친 가족 전체가 나서서 조상에 대한 시제를 함께 준비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는 모범적인 시제였다.

고흥지방중친회에는 명창근, 명경식 중친 두 분이 중앙중친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어서 그곳의 중친들로부터 큰 칭송을 받고 있다. 지방중친회는 물론 중앙중친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명광연 총무는 매년 시제를 지내기 위해 내려오는 중친들에게 싱싱한 해물을 꼭 챙겨주기로 이름이 나있고, 고흥의 서울식당과 숙박시설인 동백장을 운영하는 명홍성 중친은 매년 시제를 지내기 위해 내려가는 중친들에게 무상으로 방을 내주고, 식사까지 챙겨주는 모범적인 중친으로 소문이 나있다.





총량공 명경민 신금리 종친회장은 그곳에서 사는 종친들 대부분이 외지에 나가 있는 까닭에 종친회장 부부가 매년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 수고를 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시제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시제를 마치고 돌아가는 일행들에게 맛있는 민어, 광어 등 횡감을 싸주는 넉넉한 인심을 배풀고 있다. 이번에는 명경민 종친회장이 싸준 음식을 올라오는 길에 금산시제에서 풀어 놓고 금산 종친들과 맛있게 나눠먹는 추억을 만들었다.

금산지방시제는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들르는 코스이기에 1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 금산에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할 만큼 큰 규모로 소를 기르는 다금농장을 운영하는 명창환 종친이 있어서 최고 품질의 명품 쇠고기를 우리에게 항상 접대해주었다. 명창환 사장은 시제를 마치고 올라오는 우리에게 홍삼 정 액기스를 선물해줘서 그가 종친 간의 관계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천지방시제는 금산시제와 날짜가 중복되어 있었으나, 명노형 재경서천회장이 지방종친들과 협의를 거쳐 날짜를 조정함으로써, 다행스럽게도 중앙종친회 임원과 고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 서천 사당은 지방종친회 사당 중에서 가장 잘 단장을 해놓았기에 갈 때 마다 관

광명소같은 느낌을 받게 돼서 늘 기분이 좋다. 사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친 간 이견이 없지 않았지만, 명제운 고문이 앞장서서 멋진 모습의 명품 사당을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지방종친회 시제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옮겨가면서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옮겨가는 거리도 만만치 않아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종친들은 이렇게 따뜻한 혈육의 정을 나누어 오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살아가는 지방종친들 서로가 서로를 알고, 가깝게 지내는 가운데 종친의 정을 쌓을 수 있다고 믿기에 우리 종친들은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지방종친회 시제를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정말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며, 종사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명씨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천년만년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만나면 반기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했던 지방종친과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명씨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명씨 역사연구회' 출범예정!

명씨 역사연구재단(가칭) 설립준비회의

● 2018년 3월 16일(금) 18:00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2층 아시아라이브



우리 명씨가 '명씨 역사연구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처음 설립추진준비 단계에서는 '재단법인 명씨 역사연구재단(가칭)'으로 설립을 검토하였으나, 설립허가를 위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단법인과는 다른 형태로 '명씨 역사연구회'를 설립하기로 결정, 발족허가 준비 중이어서 곧 설립될 전망이다. 명씨 역사연구회는 명씨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회원은 명씨 역사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충분한 학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원은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거권 및 회칙이 정하는 사업의 의결권을 갖게 되며,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명씨의 역사연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기 2년의 명씨 역사연구회 임원은 연임할 수 있는데, 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1명, 연구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이사회와 연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명씨 역사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된 후,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된다.

총회는 회장이 연 1회 소집하여 열린다. 연구위원회는 매 3개월마다 개최되며, 긴급 시에는 수시 소집도 가능하다.

'명씨 역사연구회' 초대 회장은 명노승 명예회장(전 법무차관, 현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명씨대중회 명예회장)이 맡게되며, 설립자본금 5억원도 명위진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설립자 겸 이사장(명씨대중회 명예회장)이 전액 출연하여 출범한다.

한편, 명위진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설립자 겸 이사장(명씨대중회 명예회장)은 자본금 약 50억원 규모의 '파안문화스포츠재단'을 설립, 우리 사회의 수준 높은 문화활동과 스포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재단설립 검토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설립 시기나 내용 등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오프더레코드를 주문했다.

〈명씨대중보 편집위원회〉

파안 명위진(坡岸 明渭鎭) 회장 50억원 출연 파안문화체육재단(가칭) 설립준비회의

● 2017년 11월 18일(수) 18:00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2층 아시아라이브



2017년 시제찬조내역

2017.10.21

금 액	이 름
100만원	명태식
50만원	명창환, 창원지방총친회
30만원	명륜회, 명성회, 명광길, 명동성, 명제은, 금산지방총친회, 부산지방총친회, 서천지방총친회, 수원지방총친회, 여수지방총친회, 청양지방총친회
20만원	명경식, 명노경, 명노영, 명노영, 명노형, 명봉식, 명영국, 명영준, 명의선, 명인세, 명홍식, 명효남, 명효진, 보령지방총친회, 경기북부지방총친회, 고흥지방총친회
10만원	명건식, 명경민, 명광민, 명광연, 명규섭, 명남식, 명노공, 명노규, 명노수, 명노연, 명노우, 명노옥, 명노주, 명병산, 명병여, 명상하, 명석호, 명선진, 명용표, 명영식, 명영철, 명응식, 명재복, 명재필, 명제걸, 명제만, 명제방, 명제운, 명제일, 명차량, 명찬식, 명창환, 명청일, 명충환, 명한식, 명한식, 명해관, 명현태, 명홍성, 명환주, 명환철, 명효식, 천안청년회, 청양청년회
5만원	구순예, 명광호, 명균식, 명노선, 명도진, 명문관, 명민식, 명안창, 명재용, 명재인, 명제호, 명종석, 명풍식, 명합식, 명홍성, 이란학, 이병수
3만원	명세기
합 계	금 13,980,000원

뿌리공원 상징조형물 찬조내역

2018. 4. 25

금 액	이 름
1억원 이상	명위진
1천만원 이상	창원지방총친회
3백만원 이상	명태식
1백만원 이상	금산지방총친회, 보령지방총친회, 서천지방총친회, 청양지방총친회, 명경식, 명근식, 명제태, 명창환, 명효진
5십만원 이상	명노규, 명노승, 명순식, 명영준
3십만원 이상	명건식, 명광주, 명노문, 명재인, 명청수
2십만원 이상	명노우, 명재복, 명제걸, 명한식
1십만원 이상	명갑조, 명광민, 명도식, 명병산, 명복수, 명서울, 명승희, 명재원, 명제균, 명제성, 명주식, 명찬식, 명창웅, 명학식, 명현상, 명환철, 청양청년회
5만원 이상	명균식, 명달식, 명재석
1만원 이상	명승민
합 계	금 128,160,000원

명씨대중보 문의 및 구독 신청

- 명씨대중보 편집인 명광주 010-4267-3610
이메일 : adpromyung@naver.com
- 명씨대중보 편집국장 명영철 010-8551-6936
이메일 : my1857@naver.com
- 명씨대중회 사무총장 명순식 010-2008-8151
이메일 : nismyung@daum.net

회원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요청

명씨대중보 등 대중회가 발송한 우편물의 반송이 많습니다. 비용절약을 위하여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이 있는 회원은 대중회 사무국으로 꼭 연락바랍니다. (사무국장 명순식 010-2008-8151)